



▲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을 수상한 이순동 삼성메시즈를 제단 이사장이 손명두 KBS 이사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을 수상한 이승기씨가 정병철 한국광고주협회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다비치의 축하공연



▲ 광고주의 밤 사회를 맡은 배기완, 최영아 SBS 아나운서



▲ 이강환 동서식품 사장이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있다.

올해 KAA Awards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에는 이순동 삼성메시즈를 제단 이사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KAA Awards의 광고주가 뽑은 광고인상은 광고주의 권의 보호와 광고의 자유 신장, 그리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이순동 삼성메시즈를 제단 이사장은 1972년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1984년 삼성전자 홍보실 부장, 상무, 전무, 2001년 삼성전략기획실 부사장, 사장 등을 거치며 기업인으로서 광고와 홍보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1998년 제46차 세계광고주대회 집행위원, 2003년 한국광고주협회 운영위원장, 한국PR협회 회장,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 회장, 2009년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광고, 홍보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광고의 자유와 광고주의 권의 보호, 그리고 우리나라 광고산업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에는 이승기, 신민아 씨가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은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모델, 소비자 호응도와 친화력이 높은 모델, 모델로서 프로정신이 투철한 모델, 광고 외적인 면에서도 타의 모범이 되는 모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 여덟 번째를 맞는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이승기 씨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며 국민훈남 이미지를 통해 삼성전자 지펠 마시모쥬기, 지펠아사 김치냉장고, 대성 정경원, 해태음료 썬키스트, 피자헛, KB금융그룹 등의 모델로 활약했다.

한편 여자부문 좋은 모델로 선정된 신민아 씨는 색시함과 세련된 이미지로 LG전자 엑스노트, 동서식품 백삼TOP, 삼성물산 래미안, KB카드, 아모레퍼시픽 리리코스, 미쟈센, 진로 J, 한국타이어 등의 모델로 활동하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에는 KBS의 추노(드라마 부문)와 SBS의 강심장(연예오락 부문), 그리고 MBC의 아버지의 눈물(보도교양 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은 시청률이 높으면서 광고효과가 좋은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반기업 정서가 없고 기본 경제상식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 광고주가 뽑은 좋은 모델상을 수상한 신민아씨